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2월 8일(주일) 제1273호



지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내일(9일)부터 1월 18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0분, 각 캠퍼스 본당, 이재훈, 켄달 목사 메시지

내일(9일)부터 ‘2019-20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를 주제로 시작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CGNTV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해외비전교회, 캠퍼스, 기도처, 선교지 등지에 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마지막 주간(2020년 1월 13-17일)에는 R. T. 켄달 목사(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목사 역임)가 강대상에서 오른다. 켄달 목사는 1977년부터 25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했다. <자기 용서>를 포함해 약 5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특순도 품

성하다. 주향환, 주찬양, 주사랑, 주기쁨, 주임재, 위십과이어, 장로합창단, 권사합창단, 포레버성가대, 대학청년부, 차세대, 사랑챔버, 온사랑합창단, 일본어예배, 뮤지컬찬양팀,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안산M센터, 교역자들이 특순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40일 새벽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CGNTV, 5년 연속 한국기독언론대상 수상

CGNTV가 2015년부터 5년 연속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수상했다. 지난 5일(목) 열린 ‘제11회 2019 한국기독언론대상’에서 CGNTV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연출 홍주연, 윤은영)이 해외선교부문 최우수상, 3·1운동 1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연출 유진주)이 기독교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은 스포츠선교의 영향력을 증언하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3·1운동 10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낮은 곳에서 피는 봄>은 일제와 맞선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 여성독립투사들과 하와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신임장로 38명 장립 ‘2019 장로장립예배’

장로 38명이 장립됐다. 어제(12월 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9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정진호 장로(당회서기), 신임장로 및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 장로장립예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정진호 장로의 기도, 림형석 목사(평촌교회)의 설교, 신임장로의 간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세족식, 최재범 목사(일신교회)의 축사, 김진국 장로의 권면 등이 이어졌다. 이날 설교에서 림형석 목사는 신임장로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김진국 장로는 “기도, 협력, 봉사로 칭찬받는 장로가 되라”고 당부했다(신임장로 소감 8-10면).

온누리 사랑챔버·모스틀리 필하모닉 ‘희망콘서트’

12월 18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온누리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18일(수)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 사랑챔버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다. 40여 명의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40명의 전문음악인 봉사자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초청연주 등 국내 연주활동과 미국, 홍콩, 일본, 독일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희망콘서트는 사랑챔버 단원들의 자립

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다.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 성악가들이 참가한다. 지휘는 손인경 집사(사랑챔버)와 박상현(모스틀리 필하모닉)이 하고, 소프라노 오은경, 테너 하만택, 바리톤 양태중이 협연을 선보인다.

콘서트 입장권은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오늘(8일)과 다음 주일(15일) 주일 1~4부 예배 이후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10-8725-6106 / 홍하영 기자



순예배 영상콘텐츠 안내

요한계시록 22:1~11(12월 9일 본문)

본문 주제: 충성(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

영상제목: (말씀대로 사는 믿음)김병삼 목사

내용: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 횟수가 많을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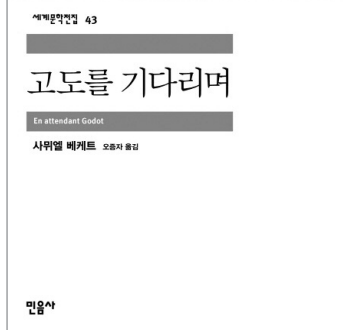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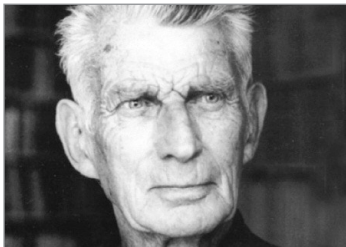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

너와 내가 기다리는 고도(Godot)가 무엇일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저 | 민음사 | 7,000원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라는 책은 ‘오지 않을 고도(Godot)’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에스트라공’과 ‘블라드미르’의 상황을 나무 아래에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현대인의 허무와 고독을 묘사하며 인간의 절대갈망인 ‘참된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헤친 작품으로 유명

하다. 1952년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오고 연극무대에 올려졌을 때 베케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여러 나라에서 영화와 연극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을 만큼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은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이 세상에 널리 공명을 얻고, 호평과 찬사를 받았던 이유는 인간내면의 깊은 갈망의 대상인 ‘가다림의 본질’을 가장 의미 있게 다루었기 때문이라. 이 책의 등장인물들처럼 현대인들도 많은 것을 기다리고 꿈꾸는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취업을 하고 싶는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취준생들,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된 직장인들, 좋은 성적과 함께 대학 진학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 아기를 원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난임부부들, 돈을 원 없이 벌고 자유롭게 써보고 싶은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가들,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결혼을 기다리는 신남신녀들, 하루아침에 고향과 나라를 잃은 이주민, 난민, 탈북민들의 기다림이 바로 이 책 주인공 같은 입장 아닐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언젠가 내가 원하고 그리워하던 것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의 만족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일까? 베케트는

두 주인공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독자들에게 현상적 기다림 너머의 궁극적인 대상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17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이 책은 모두 대화로 기록되어 있어 읽을수록 궁금증이 유발되는데 이는 고도로 기획된 작가의 문학 장치다. 모든 독자들은 저자의 의도적 질문과 마주하며 ‘도대체 고도란 누구인가?’,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베케트는 이러한 내재적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기다리고 있는 참된 대상을 모르고 있다고 반문한다. 참된 실재를 치열하게 찾고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묻지 않는 현대인들이라면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고독하고 허무와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반추하게 만든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후 수많은 언론의 질문이 사무엘 베케트에게 쇄도했다고 한다. “도대체 고도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케트는 “작가인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약간 철학적이면서 냉소적이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반응비평을 요구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색의 삶이란 누군가 대신 영위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홀로 서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저자의 이러한 초월적 태도 때문에 ‘나무 앞에서 신을 기다리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어쨌든 연말연시 인생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하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한 번쯤 추천할 만한 책이 틀림없다.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는 신앙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 신앙인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란 세상과 다른 해석의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과 외로움의 경계선에는 신을 떠난 ‘인간의 상실감’이라는 나이테가 있다. 이러한 내면의 공간과 기다림에 대한 목마름은 언제나 무엇을 의지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꿈과 욕망을 이루고 채우고 싶은 내면의 소원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가 기다림과 절망에 지친 인간들의 모습이라면, 외로운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참된 그리움과 기다림의 대상이 아닐까? 오늘 너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고도(Godot)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Q&A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도, 삶으로 전해야지 말로 전하면 역효과 아닌가요?”

답: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같듯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 10:14)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로도 증거 해야 합니다. 전하는 방법과 태도, 관계의 문제이지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명언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복음을 숨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복음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

적 이미지, 노방전도가 혐오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마음 역시 귀하지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할만큼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만큼 변화되도록 기다리다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는가?

막상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전도의 선행보다 부담감과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우리의 딜레마다. 그것은 전도의 기초체력과 전도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기초체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전도의 기초체력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전도를 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전도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몸의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운동을 해야 생기듯

이 전도도 자주 해봐야 전도근육이 생긴다.

전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상의 중력이 끌어당기기에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날아오르기가 쉽지 않다. 말씀이 삶에서 실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말해야 한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말씀근육이 생긴다. 말씀근육이 곧 전도근육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할 때 확신과 기쁨이 넘친다.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했다. 나도 전도하기 전에 말씀을 내 입에 두기로 했다.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말로 선포했더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다. 놀랍게도 묵상한 말씀이 전도대상자의 상황에 적용되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

다. 바로 그럴 때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신나는 것이 된다.

또한 전도는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취향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눌러있고 매여 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다가가 때인 줄을 꿰고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나팔이 되자.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을 덮고 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여도 오직 세상의 희망과 대안은 예수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삶으로 그들을 섬기며 반드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골짜기에 누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리라.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레시피〉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올해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이분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합니다. BC(before Christ)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Anno Domini)는 주님 오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 나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서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 대림절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역사가들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의 지극히 일부인 한 시대, 문화의 일부인 역사가들이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예단할 수 있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흐름은 달력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또 한 해가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생각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창조된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역사가들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적 몽유병의 상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11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온전히 이뤄질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은 영혼의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잠은 어둠에 취해서, 이 세상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 안에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서, 어둠에 속한 일들 속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알지만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스펔 목사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영적 몽유병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적 몽유병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 하고, 교제 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활동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이자 은혜 받을 만한 시대

왜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까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치우친 이념을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매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포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SNS에 가입할 때 프로필을 쓰는데, 거기에 자신의 성을 남자와 여자 외에 ‘커스텀’이라고 하는 성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SNS에는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성이 56개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SNS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올릴 때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포함하는데 십자가는 거절합니다. 동성애의 상징은 들어올 수 있지만, 믿음의 상징인 십자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교묘하게 들어온 이념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포용을 가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고후 6:2).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구원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악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과학기술을 통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인간의 이념, 인간의 제도, 인간이 만든 질서로 세상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점에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혼란해질 것입니다. 도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헛된 문화와 이념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대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마지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12~14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지도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변화시킬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 근처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신의 죄를 통회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습관이 신앙을 키우고 삶을 바꾼다 2. 성경읽기

성경, 얼마나 읽고 있나요?

‘오직 성경’ ... 개신교의 시작과 중심에 ‘성경읽기’가 있다
모세, 여호수아, 사도 바울, 예수님의 습관은 ‘성경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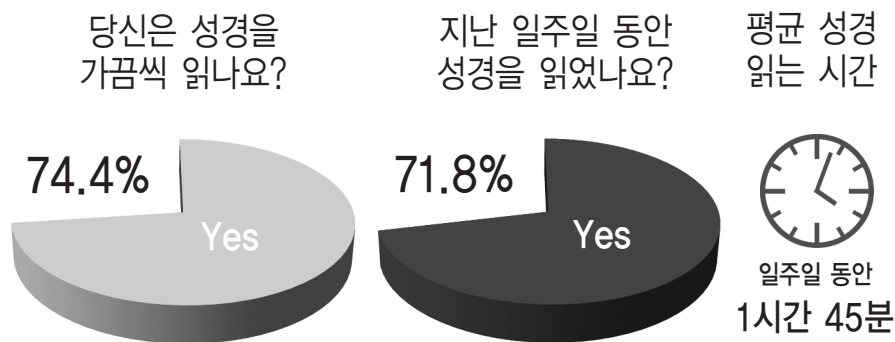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고,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그 두 번째는 ‘성경읽기’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읽기 실태조사

자료: G&M글로벌문화재단(2017)



502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킬 때 외쳤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다. 개신교의 시작과 중심에 성경읽기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읽고 있을까?

A자매(여호수아공동체)가 성경읽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성경을 얼마나 읽냐고요? 솔직히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평소엔 성경책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전자성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봐요. 성경 말고도 볼 게 너무 많거든요”

B형제(무공동체)는 올해 초 친구와 함께 성경일독에 도전했다.

“새해 목표를 성경일독으로 정하고 친구와 의기투합했어요. 혼자 하면 중간에 꼭 그만두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짐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서로 바쁘니까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친구와 의견다툼이 생겨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성경읽기 모임이 덩달아 취소됐거든요.”

이 일이 비단 A자매와 B형제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이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성경일독’을 수없이 다짐하지만 완주하는 경우가 드물다.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역설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성경

을 조금 읽든지 아예 읽지 않는다고 한다(2017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성경에 대한 친밀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2017년 G&M글로벌문화재단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읽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 개신교인 중에서 성경을 가끔씩이라도 읽는 비율이 74.4%, 지난 1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비율 71.8%, 1주일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에 비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응답자 64%가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케올러서)였다.

성경은 성경읽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성경읽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읽기를 강조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

는 날이 장구하리라”(신 17:18~20).

안타깝게도 모세의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왕국이 멸망하는 수순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다. 두려움과 부담감에 짓눌린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셨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시편 기자도 성경읽기를 거듭 강조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1~3).

신약에서도 성경읽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해 베뢰아로 피신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었다.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찾고 상고(詳考)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행 17:11~12).

상고는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는 뜻이다. 매일 성경을 꼼꼼하게 따져 읽은 베뢰아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했다. 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났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에서 성경읽기를 권면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딤후 4:13).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을

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에게도 성경 읽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눅 4:16).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양피지에 성경 일부를 기록한 것이었다. 요즘처럼 휴대하기 간편한 성경이 결코 아니었다. 휴대하기 힘든 성경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처럼 읽으셨다.

성경읽기 습관화 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읽기를 습관화시킬 수 있을까? 풀러신학대학교 마크레버튼 총장이 2017년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말씀을 귀로 들으며 읽는 것(오디오 바이블). 둘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읽는 것(커뮤니티 성경읽기). 셋째, 짧게 끊지 않고 긴 맥락 안에서 읽는 것(통전적으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경읽기를 습관화해야 한다. 주일에배에서 성경 몇 구절 읽는 것으로는 습관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를 하자. ‘비전통독’ 과정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비전통독은 강의보다는 진짜 성경 읽는 것에 초점을 둔 스쿨이다. 수료와 동시에 성경일독을 할 수 있다. 오디오 성경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100명의 연기자들과 성우들이 현장감 넘치는 목소리로 녹음한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있노라면 성경의 한 장면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순도임이나 공동체, 신우회 등에서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렀을 정도로 좋은 방법이다. 지금 당장, 잠자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자. 성경읽기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새로워지기 때문에



송석근 목사
(광명공동체,
비전통독 담당)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결과는 5%와 95%였다. 무려 95%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경공부도 했지만 제대로 성경 일독을 한 교인들이 100명 중에서 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고 간다면 이보다 역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천국에 가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콩나물 재배법과 퀀텀 리프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라며 굳은 결심을 한다. 그러나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이르게 되면 ‘내 위기’가 찾아온다. 출애굽기까지 가까스로 읽었는데 레위기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할지, 여기서 포기해야 할지 갈등이 생긴다.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연초의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

성경 읽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도저히 없다는 하소연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 요사이 사람들의 일과를 보면 너무 바쁘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쁘는데 어떻게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성경을 어렵게 일독한 사람들에게 ‘성경일독 하고 머릿속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그냥 한 번 읽었다는 것밖에는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였다. 성경을 어렵게 일독해도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면 성경통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 성경일독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일독을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게 된 것이다.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 성경일독을 할 때 훨씬 쉬워지고, 더 쉽게 통독하게 된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눈이 점점 생기게 된다. 나는 이것을 ‘콩나물 재배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콩

나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콩을 밑에 구멍이 뚫린 그릇에 넣고 물을 붓는다. 그러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 버린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 물을 머금고 위로 쑥쑥 자란다. 성경읽기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심겨져 점점 자라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원리는 ‘퀀텀 리프(Quantum Leap)’이다. 이 말은 양자역학에서 쓰는 용어로 ‘비약적인 도약’이 일어날 때 쓴다. 대나무는 처음 씨가 땅에 심겨져 자라는 5년 동안은 30cm 이상 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5년 후부터는 하루에 무려 1m씩 자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경도 통독 초기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독을 거듭하게 되

다. 뜻이 맞는 몇 사람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읽기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혼자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면 대단히 높은 경지의 내공이다.

셋째,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통독용 음성파일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성경통독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앱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집중도 잘되고 효과도 높다. 나는 스마트폰이 생기게 된 것이 성경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내 경험을 비추어 보면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성경을 읽게 되면 90일이면 성경일독을 할

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 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성경책 각각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 성경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놓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단순히 성경지식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읽게 되지만, 반복해서 읽게 되면 성경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속에서 밀려나고, 오직 내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 컴퓨터의 덮어쓰기 기능처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버리게 한다.

지금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신 17:18-20).

왕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다. 지금도 이와 같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읽기를 소홀히 한다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세시대처럼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안 읽는 시대이다. 수많은 버전의 성경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세속화된 세상 문화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버림받는 시대가 되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다. 500년 전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리바이벌(부활)되어야 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는 일부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 및 출판되면서 일어났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성경읽기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지금 바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써 다시금 우리 모두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씀(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써

다시금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

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 성경통독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성경읽기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첫째, 성경읽기를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침 이든 저녁이든 스스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하루 30분~1시간 정도 읽는 것이다. 편안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시작하면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둘째, 혼자서 성경읽기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해봤을 것이

수 있다. 1년에 4번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나이 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느냐’고 도전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매우 귀담아 들을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읽기가 생활화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성경읽기가 익숙해지면 읽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속도를 높여 읽더라도 성경이 잘 들리고, 집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훨씬 많이, 훨씬 빨리 읽을 수 있다. 처음부터 속도를 높이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여서 읽어도 성경이 잘 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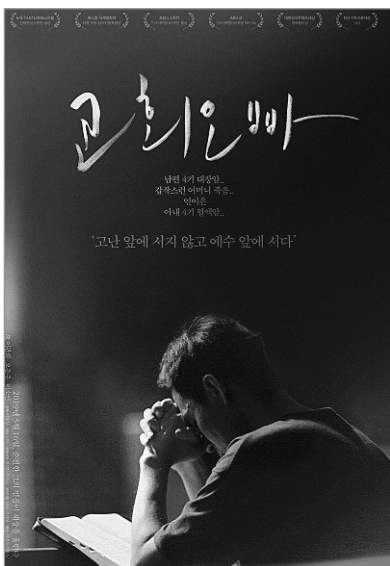
넷째, 성경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성경의 맥을 잡아 요약한 것을 먼저 보고 읽으면 유익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한 편의 영화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삶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 영화 ‘교회오빠’의 실제 주인공 이관희 집사다.



인생을 살다보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만나기도 한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한다.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괴로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답을 엿볼 수 있

는 삶을 살다간 이가 있다. 이 시대의 읍이라 불렸던 이관희 집사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 ‘교회오빠’ (2019, 감독 이호경)와 책 <교회오빠> (오은주, 이호경 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이관희 집사가 임종촬영을 허락하면서 한 말이다. 이 한 문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눈부신 삶을 뒤로한 채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십자가 고통을 택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관희 집사의 삶과 겹쳐 보인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이관희 집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 그 자체였다.

이관희 집사는 남부러운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명문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할 만큼 똑똑했고, 다국적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며 앞길이 창창해 보였다. 자타공인 ‘교회

오빠’라 불릴 만큼 신앙 역시 좋았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까지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행복을 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아들의 딸기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역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관희 집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를 찾아온 고통은 그제 끝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고통스러운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감사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 부부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왔다. 이관희 집사의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이관희 집사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이관희 집사는 육신의 회복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소망했다. 중환자실에 누워 천장에 붙은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 옆 자리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항암치료도 더 이상은 무의미해졌다. 이관희 집사가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그 단절된 느낌이 무섭고 두렵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느낌”이라며 마지막 고통과 심정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이관희 집사는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더욱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통증 속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했다.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관희 집사는 마흔 번째 생일날 사랑하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한국 교회 가정예배 역사

한국 교회 가정예배는 복음이 전해짐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79년 만주일대 한인촌 일대에서는 성경을 사고 파는 매서인들과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한인들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1884년에는 만주의 압록강 연안에 있던 28개 한인촌에서 세례교인 100명, 세례 받기를 희망하는 남자 600명 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한

다. 예배당과 예배 형식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선교사의 집 사랑방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마포삼열 선교사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려고 가정예배 순서지 등을 제공했다. 신앙의 선배들도 가정예배를 독려했다. 1918년 창간한 기독교 월간 <성경잡지> 창간호에서는 ‘재산 유무, 지위 고하 막론하고 가정예배에 단결하라’며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무려 10페이지

나 게재했다. 1933년 창간된 <감리회보> 7월 호에는 ‘가정은 공동숙박소 아니다’를 제목으로 가정예배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이 실렸다.

“아버지 된 사람은 흔히 여행하는 일이 많고, 집에 있다고 하여도 아침 일찍이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므로 가정예배 인도자로는 부적당하다. 가정예배는 주부가 인도할 것을 권한다. 또한 자녀들이 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택하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는 어린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할 것이며 어떤 때는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자.”

한국 교회의 뿌리에 가정예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정예배가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그 중요성을 잊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

본문 : 누가복음 2:28-32

찬양 -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메시지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처럼 성령님께서 머무시며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눅 2:25).

시므온이 살던 시기는 ‘영적 암흑기’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세상의 기록과 전해들은 정보로 살지 않았고, 성령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둘째,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성령께

서 시므온에게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30-32).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에게 아이를 안겨줍니다. 아빠는 그때 눈물범벅이 되어 아기를 안아봅니다. 그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시므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며,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주시기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 사랑합니다나의 예수님

*오늘(12월 8일) 저녁 8시 30분 CGNTV에서 방송되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시청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The 멋진 당신 집회서에 참석자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

“좁고 험한 길을 따라 가라”

CCF 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

CCF(Christian CEO Forum)가 지난 1일(주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문화전도집회 ‘The 멋진 당신’을 개최했다. 기업인과 크리스천 CEO, 청년 벤처인 등 570명이 참석했다.

방송인 박지윤의 사회로 시작한 전도집회는 크룩스(CRUX, 남상4 중창)의 공연, 강신익 장로(CCF 회장)의 인사말, 저녁만찬, 가수 백지

영의 공연,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간증,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노레드(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의 박현우 대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업,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비전을 위해 회사를 차렸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며 “진리에 속한 좁고 험한 길을 따라 가라”고 권면했다.

이겸담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뿐임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쓰고 싶다”고 말했다.

강신익 장로(CCF 회장)은 “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탈북민 맞춤형 전도집회 ‘징검다리’

올해 하나원 퇴소한 탈북민 30여 명 참석

이제 막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민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전도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토)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막 오른 탈북민 맞춤형 전도집회 ‘징검다리’가 바로 그것. 올해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탈북민 맞춤형 전도집회 징검다리는 황재명 목사의 말씀, 가야랑(국악찬양팀), 워포르(탈북민 기타리스트)

의 특별공연, 탈북민 선배와의 대화, 편지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 목사는 “길을 잘 걷고 있는지 헛갈린다면 정당한 길, 진리의 길, 찬란한 영광의 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탈북민 C형제는 “혼자 울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힘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기자

효성그룹, 사랑챔버에 장학금 전달

효성그룹이 온누리교회 장애인오케스트라 사랑챔버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랑챔버가 지난 3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에 효성그룹 조현상 사장이 참석해 사랑챔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조현상 사장은 “2014년부터 사랑챔버와 함께하면서 가족이 된 것 같다”면서 “사랑챔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CGNTV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12월 28일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CGNTV 세라핌합창단이 오는 28일(토) 오후 5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제18회 정기연주회 ‘Sound of Music’을 개최한다. 지휘는 최영은, 피아노 고지영, 트레이너 윤재홍, 안무 김정환

이 맡는다. 주영관찬양사역팀과 포천어울림합창단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한다. CGNTV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는 함께하는 찬양, 세계의 명곡, 함께하는 즐거움 등을 선보인다.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년 2월 5일(수)에서 8일(금)까지 2박3일 동안 더쇼어호텔제주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에서는 부부의 차이 수용, 역할과 정체성 회복,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훈련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회비는 커피를 당 66만 원(항공료 별도).

홈페이지: www.mother.or.kr
문의: 02-2182-9114

더멋진세상, 본나바마을 2차 농업사업

딸기 생산 시스템과 유통판매망 구축 목표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2차 농업사업을 시작했다. 2차 농업사업에서는 3년 동안 딸기 생산 시스템(100평형 온실 3동, 작업실)과 유통판매망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동안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1차 농업사업을 이어오면서 주민들에게 자활과 자립이라는 희망을 선물했다.

/ 김영선 기자

부천, 순장 블레싱 개최

부천 온누리교회가 지난 2일(월) 본당에서 순장과 순모를 축복하는 ‘순장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순장과 순모 210여 명이 참석했다.

윤길중 목사(부천 온누리교회 담

당)는 “순장은 사명의 자리이기 전에 부르심의 자리이고, 축복된 자리”라면서 “내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순장과 순모들이 되어 달라”고 권면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368	박준우	서빙고	1138385	김효은	SNS	1138403	강태원	여호수아	1138422	이일희	양재 특별초대
1138369	김경숙	강동 말씀	1138386	노병욱	SNS	1138404	강신혜	여호수아	1138423	양진경	신용산
1138370	이수형	강동 말씀	1138387	이선아	양지 서누리	1138405	김지원	여호수아	1138424	한지호	Point5
1138371	조경숙	태안기도처	1138388	오태훈	도곡	1138406	서신원	S브릿지	1138429	김영숙	양지 서누리
1138372	황미영	대전 남누리	1138389	이창수	송파A	1138407	노형식	허브	1138430	오지혜	이촌
1138373	한복희	인천 동누리	1138390	김모선	강촌	1138408	장지희	허브	1138431	황윤태	부천 사랑
1138374	안도유코	대전 동누리	1138391	이동엽	인천 동누리	1138409	박수빈	허브	1138432	김상호	부천 화평
1138375	김한비	SNS	1138393	강정옥	부천 믿음	1138410	강영희	성동광진	1138433	김자영	강남E
1138376	이현진	SNS	1138394	김봉희	부천 사랑	1138411	안세기	성동광진	1138434	장진설	인천 서누리
1138377	김민정	SNS	1138395	정범석	Bridge33+	1138412	김재욱	성동광진	1138435	유은실	부천 믿음
1138378	이혜진	SNS	1138396	서영숙	동작	1138413	최상희	수원 동누리	1138437	반예숙	부천 소망
1138379	박진형	SNS	1138397	구윤희	관악금천	1138414	전미현	Point5	1138438	송에스터	OEM
1138380	장성규	SNS	1138398	조용규	허브	1138415	장수진	인천 동누리	1138439	신월웅	OEM
1138381	이수정	SNS	1138399	김 신	하늘	1138417	조성희	대전 동누리	1138440	Bitna Kim	OEM
1138382	서지원	SNS	1138400	김주은	하늘	1138418	이정현	인천 동누리	1138441	Kimberly Samson	OEM
1138383	강연옥	SNS	1138401	윤의성	서대문	1138419	홍유정	이촌			
1138384	전욱기	SNS	1138402	이인영	여호수아	1138420	박정은	이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은퇴자 명단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1949년생 기준

■ 목사	신현종	〈노원〉	강혜숙	이내숙	〈분당A〉
김정숙	윤기홍	김춘남	김영덕	〈Harmony〉	김인규
김정순	〈시카고〉	〈도곡〉	조찬순	최경옥	이윤수
최승규	김 완	이혜숙	〈송파〉		〈분당B〉
■ 장로	〈양천〉	〈동대문중앙〉	정현숙	■ 안수집사	최연무
〈가정사역〉	유의준	류명자	〈수원 동누리〉	〈가정사역〉	〈서빙고〉
장형준	〈중종로〉	안명자	조인숙	김성환	김성기
〈강남A〉	백남인	〈마포〉	〈수원 북누리〉	〈강남A〉	박정신
양유식	호종일	고효순	김동욱	유재욱	이인숙
이광형	〈OCC〉	〈부천 믿음〉	〈양재〉	전영기	〈서초A〉
〈강남C〉	이 철	이규인	임한복	〈강동 말씀〉	유인선
김상집	〈강남C〉	〈북누리〉	〈양천〉	류정근	〈서초B〉
임병수	김상집	최혜련	남정현	〈강동 믿음〉	노재욱
〈강동〉	한영희	〈분당A〉	조상임	이정자	임성용
강익선	〈강남A〉	송혜숙	〈여의도〉	〈강촌〉	진삼하
〈고양은평〉	김영희	〈분당B〉	김인숙	최혜숙	황석순
편무옥	주영숙	김영희	김인영	한기인	〈서초C〉
〈과천의왕〉	한준복	박용희	나정희	〈경기A〉	공길선
김상인	〈강남C〉	임숙빈	홍민희	김대식	〈성동광진〉
박석봉	최규숙	정숙현	홍혜선	〈관악금천〉	최영렬
〈관악금천〉	〈강촌〉	〈서대문〉	〈영등포구로〉	윤경준	〈송파〉
문성기	신화자	금영숙	고규선	〈광명〉	권성철
〈광명〉	합화영	〈서빙고〉	조서엽	박성우	〈수원 남누리〉
안성영	〈경기A〉	박윤희	〈용산〉	이성순	안정남
〈서빙고〉	김명자	이영희	김현정	〈대전 남누리〉	허명희
김명중	김학영	정영선	〈이촌〉	정종득	〈수원 동누리〉
유병훈	〈고양은평〉	〈서초A〉	김창숙	〈대전 북누리〉	신재열
이관수	신귀옥	강숙정	김해주	〈양천〉	〈양천〉
최득린	〈관악금천〉	〈서초B〉	최기순	〈도곡〉	이대선
〈서초B〉	최재은	박옥경	한소영	박정숙	이병욱
〈서초C〉	〈김포〉	최인숙	〈인천 믿음〉	〈동작〉	〈이수〉
양주현	정영희	〈서초C〉	정금자	김종건	윤하정
〈서초C〉	조정희	관현숙	〈중종로〉	〈마포〉	〈이촌〉
백홍기	〈남양주B〉	홍숙자	이명희	김성국	이동형
〈송파〉	안희갑	〈성동광진〉	이숙인	김평곤	〈평택〉
한덕중	임원희	이숙자	〈한강〉	〈부천 소망〉	강순석
〈수원〉	〈남양주C〉	이인기	김옥섭	심은자	
박태성	홍미화	〈성북〉	유옥규	황주창	

2019 장로장립 소감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헌신하고 순종”



강경국 장로

항상 겸손한 마음과 적극적인 관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족하고 미약함을 고백하며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를 종의 신분으로 헌신하고 순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Acts29 비전을 이어가는 온누리공동체 장로의 길을 성실히 걸어 가겠습니다.

“예수 사랑 실천하는 낮은 자”



강은철 장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함을 입어 감사하고 지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에서 온누리교회 장로 이기에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강창재 장로

부족한 사람을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실천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겸손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김영관 장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려운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장로로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겸손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 이유 되기를”



김정훈 장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는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만 남게 하소서. 나의 눈이 바라보는 방향도, 채워지는 눈물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가 영속되는 기쁨의 삶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장로”



김종수 장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공동체 영적부흥 위하여”



박희준 장로

먼저 부족한 저를 장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로직과 함께 주셨던 마음인 공동체의 영적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비전을 품은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부흥하는데 저의 작은 손이라도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삶”



구본영 장로

장로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르지 않도록 늘 경건의 모습을 갖도록 애쓰고,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늘 겸손으로 떠 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기고, 교회와 세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장로”



권순형 장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힘쓰며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맡겨진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나광욱 장로

한없이 부족한 저를 불러 세워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각 곳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영광을 위하여”



남주언 장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노하수 장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더욱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장로”



김세준 장로

온누리 비전교회 탐방과 장로사관학교 훈련을 통해 온누리교회 사역의 엄청난 영향력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귀한 사역의 일선에서 늘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김경돈 장로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쫓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고 의로운 일 그리고 덕이 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거짓 없는 행실과 꾸밈없이 성실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를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도록”



김기섭 장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 12:15)는 말씀을 붙잡고 온유와 겸손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되도록 죽도록 충성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



박재두 장로

부족하고 비천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듯이 저도 ‘장로장립 이전의 삶’과 ‘장로장립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더 큰 사람”



박찬구 장로

장로사관학교 1년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훈련과정을 통해 감사가 더 많아졌고,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더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훈련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동안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장로”



백종신 장로

보잘 것 없고 지랄할 것 하나 없는 저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에 내 삶을 던집니다”



김민천 장로

먼저 지명하시고 그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누리교회 장로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낭떠러지에 내 삶을 던집니다. 나설 때와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고, 열심을 낼 때 방향을 생각하며, 충성할 때 신 한 영안이 함께 가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겸손과 기도로”



김성철 장로

먼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온누리교회의 사명인 Acts29비전을 써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장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늘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과 기도로 맡겨진 사역을 잘 섬기기를 희망합니다.

“교회에 덕과 본이 되는 장로”



김신원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하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에 덕과 본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



백중욱 장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명예를 메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큰 은혜 입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



신철우 장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겸손히 섬기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Acts29 비전을”



안상현 장로

부족한 저를 온누리교회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와 교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협력과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 지체들과 함께 Acts29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장로장립 소감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오명 장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렘 4:13)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 회개 그리고 사랑!”



오범규 장로

주님 손잡고 굳어진 나의 의를 깨뜨리며 걸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며 늘 회개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겠습니다.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이 잘 세워지도록 청년들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윤석주 장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뜻 이루는 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지 않으며, 주신 영혼들과 협력하여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다음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



이우경 장로

감사와 부담이 섞여진 마음으로 장로사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온누리교회 탐방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구원 받기 전의 제 모습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정표와 끝말 되기를”



이학일 장로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끝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렘 31:21). 얼굴이 늘 빛 되신 예수님 이 그러셨듯이 누군가의 이정표와 끝말이 되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기를”



임상범 장로

부족한 저에게 장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격하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장로”



장문석 장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죄를 범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지혜 구하는 좋은 장로”



정응화 장로

지금까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드립니다. 장로사관학교 훈련에서 받은 은혜에 힘입어 변함없이 주님의 청지기로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좋은 장로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조성수 장로

자력이 없는 저를 장로로 불러주신 것은 항상 기도하며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장로가 되고, 낮은 자리에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선교에 목숨 거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날마다 구하고 실천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에 합당한 삶”



최용재 장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기도예에 항상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 따라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Peace Maker”



최호림 장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Peace Maker’로 살겠습니다.

“마을 어귀 나귀가 되어”



하주현 장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시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맞은편 마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잘 달리지 못하고, 볼품도 없지만, 그래도 주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성도에게 존경받는 장로”



한복규 장로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귀한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장로사관학교 훈련 내내 제게 떠오른 단어는 오직 ‘은혜와 감사’입니다. 선배 장로님들께서 솔선하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장로”



허영한 장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협력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장로장립 대상자는 38명이다. 이들은 장로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장로고시를 패스했다. 2019 장로사관학교는 지난 3월 8일 개강해서 10월 25일 종강했다. 피택장로들은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공훈의 영성, 사회선교,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선교, 수련회,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참석, 사역지 탐방, 부흥축제 봉사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받았다.

■ 화성M센터 봉사자 간증



/ 한선우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에는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친구들이 많다. 그들은 한국의 유명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하는데 시간과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수업시간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그 중 한 곳이 설악산이었다. 나 혼자 이 이주민 친구들을 데리고 설악산에 다녀오는 것이 부담되어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른 반에서도 설악산 나들이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16명의 이주민 친구들과 함께 단풍이 절정이던 11월 초 설악산에 다녀왔다. 전에 한국어 교사로 봉사하셨던 김명희 선생님께서 속초에 있는 본인의 집을 내어주시고, 사전답사를 통해 이 동코스와 시간계획을 정해주셨다. 서빙고공동체 한 순에서는 아침 간식과 멋진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로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토요일 밤 9시에 출발해서 자정이 넘어 속초에 도착했다. 다음날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서 새벽 4시 기상해야 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주민 친구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새벽 4시가 되기 전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울산비위, 속초해수욕장, 대관령 양떼목장 등을 둘러봤다. 이주민 친구들은

이주민들과 함께 설악산 나들이

피곤을 잊고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사진 찍기 바빴다. 서빙고공동체 순 식구들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는 그야말로 만찬이었다. 정성 가득한 자국 음식을 대접받은 이주민 친구들의 표정이 그야말로 싱글병글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설악산도 양떼목장도 아니다. 이주민 친구들과 함께 30분 동안 드린 짧은 예배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모두 모여 짧은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다. 평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닌데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 처음 듣는 찬양을 최선을 다해 따라 부르고, 시편 말씀도 읽었다. 그 누구의 표정에서도 예배에 대한 거부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가졌다. 이주민 친구들에게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많은 성도들이 가까운 M센터나 이주민기관을 찾아가서 이주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 남양주 차세대 양육콘서트 간증



/ 배기윤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연약한 나와 내 자녀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

남양주 차세대 예꿈영역 양육콘서트 주제가 ‘성경적 양육 대안 및 행복한 가정예배 세우기’였는데 사실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어떤 강사님이 어떤 좋은 방법을 이야기 하신다고 해도 극성맞은 두 아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기운을 뺏기는 나의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양육콘서트 1부 강사 김지혜 사모님이 첫 곡으로 부른 ‘나는 네가 거할 집’이라는 찬양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렸을 때 많이 당황했다. ‘나는 네가 거할 집, 나는 네가 안길 품, 팔아 내게 안기어서 평안히 쉬렴’이라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들어 날 보렴, 내 눈에 비친 너를, 너 무나도 아름답다, 영원한 내 사랑’이라는 가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자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오는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었다. 나는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매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아이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부가 위로의 시간이었다면 2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말씀암송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백은실 사모님의 강의는 감탄의 연속이었다. 일단 강사님이 네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또 네 아이가 200~2,300여 구절을 암송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백은실 사모님은 엄마가 먼저 외워서 아이들에게 말씀암송을 가르치고, 외운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린다고 하셨다. 백은실 사모님 가정은 말씀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풍요로운지를 증거하고 있었다.

두 강사님의 분위기와 강의 내용이 전혀 달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다. 부모 된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연약한 모습을 자녀 앞에서 인정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완벽한 부모라서 자녀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연약한 나와 내 자녀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나만의 결론을 내려 보았다. 좌충우돌 삶은 계속되지만, “애들이 우리 같이 큐티하고 예배드리자”라는 말을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간증



/ 오은영 성도(두란노어머니학교)

여군들의 어머니학교

올해 여름, 이틀 동안 군부대에서 두란노어머니학교를 개최했다. 누구보다 멋지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어머니(여군)들의 눈물은 농도가 더 진해 보였다. 군대라는 특성상 여성성은 되도록 감추고 철저하게 남성과 겨루어야 하는 문화 때문인 것 같았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 참석한 여군들은 지금까지 감춰던 눈물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율동과 허그를 할 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코끝이 뻗개지며 노래하는 여군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하나님의 딸들이었다. 생화를 꽂아둔 테이블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진짜 꽃이냐며 만져보는 모습은 호기심 가득한 소녀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눔이 깊어지자 한 지원자가 “어머니학교는 원래 이렇게 우는 곳이야”고 질문했다. 그곳에 모인 모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원자 모두가 화관을 쓰고 싶다고 했다. 군모가 아니라 화관을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한 송이 꽃 같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지원자의 소감을 나눈다.

“저는 올해 3월 결혼한 신혼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자신을 위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목표가 있기에 가정은 미루어둔 숙제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학교를 접하면서 제 안에 숨겨진 상처와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좋은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고,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성장한 삶을 짚어보는 것은 어머니학교가 아니라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학교 과정을 듣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 기쁨과 사랑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어머니학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도구였습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112기 지원자 모집
일정: 2020년 1월 7일~16일(매주 화, 목)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만 원
문의: 02-2182-9114

■ 두란노아버지학교 간증



/ 이해수 성도(마포공동체)

사랑받는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가정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친목모임과 여가활동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 내가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학교에 참석했다.

아버지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 중에서 가족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살아온 것 같았다. 어떤 삶이 진정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아버지학교에 참석하면서 교회와 가정에 지금보다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일에만 교회를 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운동과 친목모임을 점차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자주 갖고자 노력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기로 했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실천이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과 인간관계들을 뒤로 하는 것이 어려웠다. 평일에는 전부터 잡아 놓은 약속들이 가득했고, 주말에는 동네모임 등에서 연락이 계속 왔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었다. 처음부터 무자르듯 친목모임을 모두 거절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노력하기로 가족들과 다시 약속했다. 우선순위를 가족으로 정하고 조금씩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학교에서 배운 가족의 소중함이 내 가슴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아는 따뜻한 가정이 되고 싶다. 내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랑받는 남편, 아버지가 되고 싶다. 기도로 무장한 영적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내가 살던 동네, 그 기억의 파편들



임훈 장로
(부천소망공동체)

흑석동 산 86-1번지. 외할머니가 장독대에서 퍼 오신 한겨울 차가운 김치국물에 설탕을 적당히 섞어 말아먹던 국수는 여전히 순위변동이 불가한 내 인생 음식으로 남아있다.

서빙고 앞 한강의 절반이 모래사장이던 시절 파란 하늘과 파란 강물은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없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상도동을 훌쩍 넘어 서둘러 떠나간 태풍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구름의 파편들을 남겼지만, 그 사이로 빛나던 노을빛은 눈을 땔 수 없는 장엄함 그 자체였다.

명수대 성당을 다니던 나는 아는 형의 강권으로 동네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때 본 주일학교 선생님의 아우라는 무심코 지나치던 예배당을 눈여겨보게 만들었다. 어두운 밤길을 따라 오며 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사코 전하던 동네 누님은 귀찮은 선녀였다. 일사 후퇴 때 북한을 탈출했던 부모님은 트라우마로 평생 자유롭지 못하였고, 감수성이 예민한 막둥이는 근심이라는 짐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다.

현충일이 다치면 용산역에 도착한 기차는 하얀 상복을 입고 과나리보짐을 진 수많은 유가족들을 토해 내었고, 그 행렬은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끝없이 이어졌다. 그곳에서 목 놓아 울던 그들이 다시 길게 줄지어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들이 가고나면 탱크와 비행기가 있던 그곳은 다시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깊은 상처와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시절에 한 강변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강 건너 용산 쪽에 높이 올라간 건물이 아파트라는 것을 처음 안 시절 아버지는 “저런 닭장 같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을 의심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스무 살이 되던 해 친구의 강권으로 참여한 기독교학생연합회 예배 중. 자리를 찾다 우연히 본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힘찬 찬송 소리는 낯설었지만 무엇인가 있다는 직감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설교 이후 콜링(calling)시간에 본 죄에 대한 환상과 회심은 강권적이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난생 처음 간 수련회가 끝나고 찬양을 부르며 경험한 성령세례는 기쁨의 샘이 터지는 듯하였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흠어진 퍼즐처럼 산만한 인생은 뭔가 강한 빛줄기를 보았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얼마 전 나는 서빙고 모임에 일찍 도착하여 운동 삼아 강변을 걷다가 강 건너 흑석동 산 86-1번지가 눈에 들어왔다. 정면에서 보기 위해 더 걸어 내려갔다. 날은 저물어 가고 바람은 차가운데 몇 번이고 변한 강산은 네 가구가 살던(그 집 중 한 집은 절친 박윤우의 집이었다) 그 산의 양쪽이 다 깎여 나가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겨우 끼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저 넘어 동네를 휘감아 가고 있었다. 세월을 거슬러 다시 그리운 얼굴들을 추억해 본다. 그리고 여전히 영적싸움이 치열한 이 땅에서 서린 가슴으로 하늘을 바라본다.

건강한 여성,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아내



양재경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다. 내 아버지는 가정이 있는 분이였다. 나를 낳고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셨다. 어머니는 수치심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다. 매일

일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도 술을 한 잔 하시고는 집을 뛰쳐나가시곤 했다. 항상 외할머니는 나에게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나는 그 집이 너무 싫어 일찍 결혼했다.

20년 전 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남편과 나는 두란노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를 수료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환상이 하나도 없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창조원리를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알콩달콩부부학교’를 섬기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갔다. 마음을 담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름다운 성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재정원칙을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들을 위해 섬김을 계속 이어갔다.

10월 말 1박2일로 진행된 목회자 부부학교는 접수과정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부부학교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모님들의 열망에 비해 목사님들은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 들릴 것 같고, 오픈해야 할 것 같아 신청을 해놓고도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많았다. 포천에 도착하고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다. 목사님과 사모님들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 됐다. 하지만 모든 일에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목사님들의 닫힌 마음을 바로 무너뜨리셨다. 부부학교 가운데

로 부부가 함께 들어오도록 인도하셨다.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목회자 신분을 내려놓고 남편과 아내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는 점점 솔직한 속내를 내놓게 만들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소감이 쏟아졌다. 1박2일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 부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각 가정마다 대화의 통로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도 있었다.

마음 열기 시간을 통해 자기를 돌아본 적 없던 목회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진짜 모습을 만나고 가슴 시린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신뢰게임에서는 휠체어를 타시는 남편을 둔 사모님의 통곡에 함께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셨던 목사님께서는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고백을 하셨다. 그 자리에 모인 부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내게는 당신밖에 없었군요”라는 귀한 고백을 하게 됐다.

목회자 부부학교를 섬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굴속으로 몰아넣는 듯 했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다. 주님께서 목회자 부부학교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목회자 가정이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다. 목회자 부부가 변화되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다. 부부학교를 섬기는 사역은 참으로 복된 사역이다. 다른 가정을 섬기며 내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다. 앞으로 더 많은 발견들이 남아있다. 건강한 여성,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아내로서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내고 싶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삶을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이영선 목사
(오사카 온누리교회)

작년에 ‘아키타’라는 지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요즘 오사카 온누리교회 라이브 방송이 끊기는 데 인터넷 시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분은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에서 사역하는 ‘모토 유리’라는 분이였다. 그분은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성장했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해서 훈련을 받은 분이였다. 작년부터는 어머니가 개척한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 책임자로 섬기며 주일예배를 오사카 온누리교회 라이브 방송으로 드리고 계셨다.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사카 온누리교회 예배를 다른 지역 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같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꼭 시간을 내서 그곳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년 만인 지난 9월, 아키타 현 노시로라는 곳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모토 유리 씨와 초등학교 두 아들, 가까운 곳에 사시는 한 아주머니, 교회에 오기 위해 운전 면허를 딴 한 자매, 저녁집회만 참석하는 아저씨 등이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의 모든 구성원이었다. 우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어린이 이벤트와 음식 바자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가 모녀 두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6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의 이름에 왜 ‘매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를 도착해서 실감했다.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는 매일 새벽기도와 저녁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일본의 작은 도시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기뻐졌다. 주일예배에서는 가까운 곳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 교회의 첫 세례자였다. 작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 하였던 작은 교회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지켜보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모토 유리 씨에게 신학교에 갈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 가운데 오사카로 돌아왔다.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다음 아웃리치를 계획했다.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마음이 많이 열려있다. 크리스마스는 좋은 전도의 기회다. 그래서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웃리치와 두 번째 아웃리치 사이 몇 가지 기쁜 일을 주셨다.

첫째,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세례자를 또 예비해 주셨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세례 받기를 주저한 자매가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른 형제분은 우리가 방문한 기간에 처음 교회에 오셨고 그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한다. 그분

도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둘째, 모토 유리 씨와 세례를 받는 두 분 이렇게 세 명이 통신으로 수업하는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셋째, 이번에 가는 아웃리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9명, 한국의 모 교회에서 8명이 참가한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어린이 이벤트, 한국에서 온 교회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담당하게 된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더욱 클 것이라 믿는다. 아키타 매일그리스도교회와 협력관계를 갖고 나서 나에게 싣트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 “우리의 도움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도움이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내 자신이 목적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순수하다면 일본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지 않을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밤이 깊을수록 여명이 밝아옵니다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뉘우침 과정에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 통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슨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서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알리피우스(친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놔두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들고 펴자마자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롬 13:13-14)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13절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14절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들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행, 호색, 다투, 시기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그 시대에 기승을 부리는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방탕, 술 취함, 음행, 호색, 다투,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와 시기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둠의 일들을 벗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타락한 인간과 최후에 회복된 인간을 표시할 때는 언제나 옷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죽음으로 너희 죄가 덮여지고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옷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양의 피로 씻어 회개 한 그 옷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결혼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제공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쫓아냅니다. 왜 옷을 잘못 입은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당시 잔치는 반드시 왕이 제공하는 의복과 예복이 주어진다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왕이 베풀 잔치, 의복까지 제공하는 잔치에 초대받은데 “나는 그 예복을 입기 싫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옷을 맞춰 입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자체가 기쁨의 표현입니다. 왕이 베풀 잔치에서 왕이 제공한 예복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왕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고 왕이 제공하는 새 옷을 입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회개란 즐거운 일을 포기하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회개란 즐거운 일을 위해 괴로운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옛 옷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기쁨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덧입게 되는 은혜의 옷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은 깊은 어둠속에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욱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오는 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벽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의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유대인과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탄생



류모세 목사
(살롱이스라엘 담당,
<열린다 성경> 시리즈
저자)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1602-1651년)는 17세기 중반을 향하면서 그 바통을 새롭게 바다의 왕자로 부상한 영국에 넘겨주면서 스페인과 함께 이등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네덜란드와 함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꺾은 영국(1588년)이 네덜란드의 독주를 막아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내란 상황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후(1603년) 영국은 청교도혁명, 즉 의회파와 국왕파 간의 내전에 들어갔다. 결국 1649년 의회파가 공화국을 선포하고 올리버 크롬웰을 호국경으로 옹립했다.

청교도로 구성된 강력한 철기대를 기반으로 독재를 펼친 크롬웰의 영국은 ‘섬나라 영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선포와 함께 강력한 해군 국가로 등장한다. 이후 네덜란드와의 전쟁

(1654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은 네덜란드가 개척한 전 세계 무역망을 고스란히 점수한다. 네덜란드가 건설한 뉴암스테르담은 영국령이 되면서 황태자인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New York)으로 바뀐다.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 역시 유대인들의 대규모 이주와 관련이 있다.

네덜란드의 유대인은 크롬웰 통치하의 영국에 특사를 파견해 유대인 이주를 타진했다. 크롬웰과 협상을 주도한 유대인 대표는 당시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를 이끌던 므낫세 벤 이스라엘이었다. 그는 1648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대학살로 인해 유대인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몰려들자 고민에 휩싸였다. 네덜란드가 유대인들의 정착을 허락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의 위치가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시민권도 없고,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유럽의 유대인 난민들이 암스테르담으로 밀려든다면 예기치 못한 반유대주의가 네덜란드를 강타할 것이 뻔했다. 이때 므낫세는 인근의 섬나라 영국을 떠올

렸다. 1649년 오랜 내전 끝에 청교도가 주도하는 의회파가 승리하자 므낫세는 영국으로 유대인들이 이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겼다. 이는 청교도들의 친유대적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청교도 학자인 헨리 핀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헨리는 1621년 <세계의 위대한 회복>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명기 28장 64절을 인용하며 유대인이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지기 전에는 재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곧 유대인이 영국에도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땅 끝’은 영국을 뜻하는 중세 히브리어였다.

영국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크롬웰과 므낫세의 협상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1655년 영국으로 유대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1656년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믿은 급진적인 청교도들의 역할이 한뼘했다. 1656년 고대하던 메시아의 천년왕국은 오지 않았지만, 유대인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은혜를 갚았

다. 크롬웰이 죽고 영국은 잠시 혼란기를 겪지만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네덜란드 출신 윌리엄 암공이 영국왕으로 무혈 입성하는 명예혁명(1688년)이 일어나자 네덜란드의 유대인들은 다시 한 번 영국으로 대거 이주했다. 이로써 17세기 초 인구 15만에 불과하던 런던은 세기말 40만 대도시로 급부상했고, 세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는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옮겨졌다. 영국에서 유대인의 삶은 네덜란드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다. 시민권을 주지 않던 네덜란드와 달리 영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에게 제한 없이 시민권을 발급했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부유한 유대 상인들은 임신한 부인을 영국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자식들이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때 생겨난 신조어가 바로 ‘원정출산’이다.

<열린다 성경 스테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4월 30일~5월 6일
-이탈리아 2020년 9월 28일~10월 5일
문의: 010-4902-1022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렉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목역) 잔 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 (010-4731-6514) 서빙고 분실물 처리 안내 분실물품을 보관관리팀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 니다. 12월 15일 이후 10월 말까지 분실 접 수된 물품에 한해서 일괄처리. 일본어예배 간사 모집 자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능자, 일본어 통번역이 가능한 세례교인 문의: 최민희(010-4764-8382)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봉사자 모집 모집: 한국어 및 토박이 강사, 기타 이주민 대 상 프로그램 강의, 행정 및 학습자 관리 등 다문화평생교육원 업무 자격: 한국어 자격증 소지자, 이주민에 관 심이 있으신 분 시간: 평일 및 주말 조정 가능 문의: 070-4439-1704	양 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무(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게시판 광고 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민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민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7:1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젊은이예배 오후 14:30 분당, 5부 대학부예배 오후 14:30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9:00 꿈팡(초1~초6) 오전 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 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은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민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 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00, 11:30 꿈팡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 천 O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1, 8, 15, 22, 25, 29: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 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섬 7층(송도 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 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 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 예 배 오후 2시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 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벤티셀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서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제1273호 | 2019년 12월 8일(주일)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1선 7층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통화온누리 엄정선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앨버틴 박산우 목사 1-949-261-9100 17200.Iamboree.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8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슬랜드 우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일본 •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카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9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 (内地大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G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海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shi Minhangqu Caobao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	---	--	--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도육환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이영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전임)

김기락 안사필 이우람 정성진

최대홍 최성규 한은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세현 김종영 김창성 김해경 네트라 박스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전도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현국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영관 조준수 조영성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한희희 황재명 황종원 황준원 khagvasuren

◆부목사(파트)

김수진 권은영 권용갑 김혜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성완 김성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제승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태용 김현아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문용 문영재 문정원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필 박성천 박세웅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서현 송석근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민 오은규 원유경 원대배 원유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백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재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

CGNTV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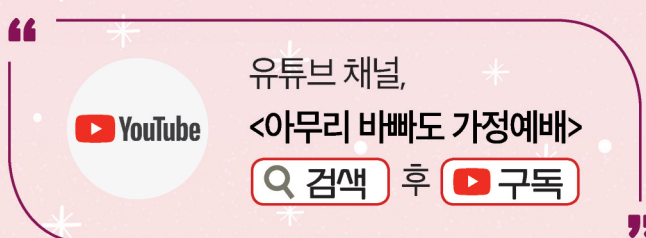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와 함께
은혜와 감사를 나누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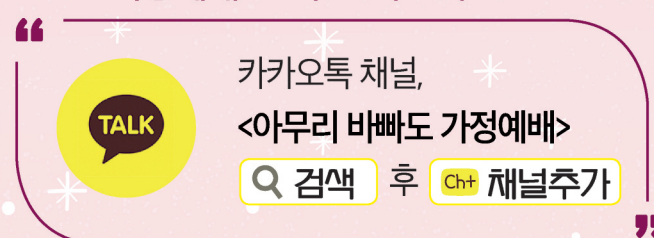
매주 주일 저녁 8시 30분 방송



라이브 가정예배 참여방법



가정예배 소식 받아보기



컬러 3종류: ■ 브라운 ■ 레드 ■ 그레이

2020년 CGNTV 말씀달력을 판매합니다.

2020년에도 말씀달력을 곁에 두시고
매일 말씀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판매처 두란노서점 (서빙고,양재)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CGNTV 미디어 사역에 사용됩니다.

20
20